

## 새 시대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 Expecting Our Own Architecture for Coming Age

김승제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im Seung-Je

이제 우리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 한 가운데 서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건축도 새로운 장르가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건축이란 사회적 산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온 근대사회와 근대건축의 모습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 봄으로서 이제 새로이 펼쳐지는 21세기의 건축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건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21세기의 건축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지 등등 궁금해진다.

근대란 1769년 증기기관의 개발에서 시작되는 물질적 혁명인 산업혁명과 1789년 반종교적이며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정신적 혁명인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된다. 새로운 모던시대 즉 근대는 자유 주권재민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신적 혁명에서 노동, 운수 등 생활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사회 조직의 변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낳게 하였으며, 이 두 가지 커다란 정치노선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경쟁하듯이 서로의 유토피아를 향하여 질주하게 된다. 즉 정치적 재편성이 시작된다.

이러한 경쟁은 20세기 초기에 들러 2차례에 걸친 커다란 전쟁을 낳게 되며, 그 후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냉전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두 체제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드디어 1987년 독일의 통일로 시작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패배와 자본주의의 승리로 한 시대의 선을 긋게 된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종말은 또 다른 시대의 출발을 예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격동의 한가운데 서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 시대인 근대인 새 시대에서 건축은 어떻게 대응하여 왔을까. 건축 역시 예전의 양식건축 이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대중을 위한 기능주의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이념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론들이 정치적 영향과 함께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근대건축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대건축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져왔던 이데올로기적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아트 앤 크라프트 운동을 시작으로 아르누보, 세제션, 구성주의, 표현주의, 독일공작연맹 등의 여러 시도를 거치게 되며, 바우하우스라는 교육기관의 설립 그리고 근대국제건축회의(CIAM) 결성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근대건축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Late Modern 혹은 Post Modern, 하이테크 등의 성숙단계를 넘어 그 모순점이 자주 지적되곤 한다. 이제 근대건축의 한계가 온 것이며, 이는 바로 구시대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또다시 세계의 정치체제 재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근대의 이념적 논리는 이제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사회구조의 등장이 요구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건축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된 근대건축의 모습에서 생활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근대건축이념은 이제 더 이상 따라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는 해체주의는 새 시대에 적응하려는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마치 19세기 말에 유행하였던 아르누보의 등장과 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신비로운 건축의 모습으로 등장한 해체주의 건축은 현재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시킨다. 하지만 해체주의의 근본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멋있다. 단순한 유행인 듯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여 주는 분위기를 느낀다.

이데올로기 건축이라 할 수 있는 근대건축을 다소 과장되게 정의한다면 「자기의 의식에 의해 세계를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파악된 세계에 의미를 인정한다 라는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근대건축은 국제건축(인터내셔널 건축)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이념 속에는 건축과 건축가의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건축이란 건축가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전제가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여왔다. 그래서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만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왔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들의 건축이 그러한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이 시대에서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이제 건축의 이데올로기는 공동화 되어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건축가가 건축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인 바로 이데올로기라 한다면 이미 건축은 건축가의 손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현상화된 건축과 건축가가 어떻게 서로 연관을 지는 것이 좋을까하는 명제가 나타난다.

현재 50대, 60대 건축가들은 인류의 꿈을 건축으로 실현해 보려는 시대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크게 갖는 것이었다. 그 꿈을 건축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르다. 이전처럼 새롭고 보다 매력적인 꿈을 향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창조한 꿈 가운데 무엇이 실현 가능한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세대이다.

한국의 건축 문화는 한국의 건축가들이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하여 좋은 건축물을 서비스해야 하는 의무와 명제는 항상 중요하다. 때문에 좋은 건축가가 많으면 좋은 건물이 많아지게 되어 도시나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들의 도시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건축인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인 근대를 자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서구의 근대화문화가 들어오고, 근대건축이 뿌리내리게 된다. 때문에 건축이라는 장르에서도 서구문화에 대한 콤플렉스가 언제나 등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이제는 우리들도 해방이후 근대건축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충분한 경험과 성과물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예전과 같이 선진국의 건축이념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의 이념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힘으로 짚어지고 가는 능률한 모습을 기대한다. ㉮